

도움 필요한 곳 즉시 출동하는 '원팀'

경기신문이 만났습니다!
오현철·손정희
시흥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부부

35년 시흥 지킨 부부 대원
재난 현장 누비며 생명 지킴
"봉사의 기쁨 함께 느끼길"

같은 옷을 입고, 사람과 지역을 살리는 것을 삶의 가치로 여기는 부부가 있다. 거모동에서 자원 재활용 관련 사업을 하는 오현철(59)·손정희(55)씨 부부. 오씨는 시흥소방서 의용소방대 회장으로, 손씨는 시흥소방서 의용소방대 여성대 반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부부 의용소방대원이다.

부부는 35년 넘게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다. 허허벌판이던 도시가 첨단산업과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 특공대 출신인 오 회장은 그 경험을 살려 의용소방대에 지원했다. 활동을 시작한 즉시 이것이 자신에게 맞는 옷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25년 여간 직접 현장에 출동하며 오 회장에게는 버릇이 생겼다. 작은 연기나 사고를 목격하면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 때문에 가끔은 재난문자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일도 있다고. 오 회장은 시흥 뿐 아니라 광명, 가평, 양평 등 전국 재난현장에 직접 출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화재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 출동해 구출 작업을 돕거나 했어요. 당시에는 지급처럼 소방인력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손 반장은 육상선수로 활동했던 경력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으로 선정된 경우다. 당시 공단대 대장과 연합회장, 여성대 대장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2022년 의용소방대원 활동을 시작했다.

"남편이 그간 활동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의용소방대원이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거든요"

특히 손 반장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큰 활약을 보였다. 지난 2023년 경기도 대회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그 이듬해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대회에 진출했다. 올해는 오 회장과 함께 경기도 대표로 4인조범* 전국대회에 출전했다. 내년부터는 코치로서 선수양성에 힘을 기울인다.

*소방 현장에서 4명이 각 역할을 나눠 신속·효율적으로 진압을 수행하는 방식, 관장수 1명, 관장보조 2명, 소화전 점령 1명으로 나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용소방대원으로 오현철·손정희 시흥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부부.

서 가장 큰 보람은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것에서 온다고 부부는 입을 모았다. 지난해 정마에 침수된 차량 구출 요청이 왔던 경험이 대표적이다. 자원 재활용업을 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많았던 부부는 바로 차를 끌어 인도해줬고, 그 다음날 운전자가 떡과 직접 쓴 편지를 집 앞에 두고 갔던 것.

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흥반장이 되기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과 생활 안전을 알리는 매신자가 되기도, 또 사회 약자의 손과 발이 되기도 한다.

최근 손 반장은 흥 회장이 현장에 출동하고 의용소방대를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차기 연합회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손 반장이 직접 만드는 일종의 매뉴얼이다. 의용소방대의 내일을

생각하는 부부의 진심이 전해진다. 현재 시흥시 의용소방대원은 총 210명, 이중 여성대원은 40여 명 남짓이다.

"의용소방대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그만큼 일상의 여유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래도 순수하게 타인을 위한 봉사에 전력을 다하면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느끼고 싶은 분들은 꼭 의용소방대의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해요"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봉사의 기쁨은 부부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꽃피우는 것, 부부는 오늘도 목적이 있는 삶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글·사진=김원규 기자



과천소방서는 '2025~2026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과천소방서 제공

과천소방서, 겨울철 화재예방 장려상

시민참여형 화재예방 시책 성과
숨수건 보급 등 안전대책 추진

과천소방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2025~2026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겨울철 기간 동안 시민 중심의 화재예방 시책과 화재취약시설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과천소방서는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해왔다.

주요 추진 시책으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안전대책 추진 ▲화재취약시설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 ▲시민참여형

안전 OX퀴즈 운영 ▲화재예방 거리미술품 운영 등이 있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썼다.

특히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현장 중심 안전대책과 화재취약시설 대상 숨수건 보급 활동을 통해 초기 대피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시민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속 화재예방 실천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

주권향 과천소방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룬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재예방 시책을 지속 추진해 더욱 안전한 과천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범 기자

동성화인텍, 안성 취약계층 어르신에 '시원한 나눔' 전달

자원봉사센터와 냉기나눔 전달식
서클레이터 등 담은 꾸러미 제작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성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기업과 함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을 나섰다.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 동성화인텍과 함께 '냉기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폭염 속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겨울 진행했던 '온기나눔' 활동에 이어 계절을 넘어 지속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전달된 냉기나눔 꾸러미는 동성화인



안성시자원봉사센터와 (주)동성화인텍 관계자들이 '냉기나눔' 전달식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을 위한 냉기나눔 꾸러미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텍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했다. 꾸러미에는 시원한 촉감의 인건이불과 실내 공기 순환을 돕는 서클레이터 등이 담겼다.

임직원들은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다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직접 포장과 제작 과정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

미를 더했다.

김동성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은 "지난겨울 따뜻한 온기를 전했던 동성화인텍 임직원들이 이번에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다시 찾아왔다"며 "계절마다 잊지 않고 이웃을 살피주는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안성의 나눔 문화도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동성화인텍 관계자는 "폭염 소식에 걱정이 많으실 어르신들에게 이번 꾸러미가 작은 위로와 시원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365일 변함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이날 전달 받은 냉기나눔 꾸러미를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정성우 기자

화성 동탄농협, 원로조합원 초청 행사

안보 견학·유람선 관광 진행

화성 동탄농협이 가정의 달을 맞아 원로 조합원을 초청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효(孝)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박정양 동탄농협 조합장과 원로 조합원,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견학을 시작으로 로얄파크컨벤션에서의 축하 행사, 아라뱃길 유람선 탑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동탄농협은 이날 축하 행사에서 85세 이상 부부 조합원 12쌍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오랜 세월 농협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박정양 조합장은 "오늘의 동탄농협이 있기까지 기반을 닦아준 원로조합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한다"며 경의를 표했다.

그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복지사업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동탄농협 원로조합원 초청 (孝)한마음 행사에서 박정양 조합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탄농협 제공

구리시갈매신도시연합회, '태릉CC 개발 교통정책협의 TF' 발족

GTX-B 갈매역 정차 대책 촉구

구리시갈매신도시연합회가 태릉CC 개발에 따른 교통 문제 대응을 위한 주민 주도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연합회는 '태릉CC 개발 교통정책협의 TF 발족식'을 열고, 구리갈매지구 교통현황과 태릉CC 개발 추진 경과를 공유한 뒤 향후 운영 방향과 정책 제재를 발표했다.

행사는 신동화 구리시의회의 의장과 김용현 시의원, 연합회 교통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상천 회장은 "갈매동은 수도권 동부권의 중추적 위치에 있지만 교통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태릉CC 개발 발표 이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TF를 재가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은 갈매지구의 교통 상황을 '교통 지옥'에 비유하며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와 태릉CC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장은 "시장에 당선된다면 시장 직속 '갈매지구 교통문제 해결 TF'를 설치해 GTX-B 정차 분과와 태릉CC 대책 분과를 운영하겠다.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갈매역 정차와 관련한 현행소원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용현 의원은 "노원구 등 인접 지자체보다 앞선 대응을 위해 교통 정책과 인프라를 반영할 수 있는 TF를 조기에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 설계 도서에 구리시 요구 사항이 정식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앞으로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 공동 대응 ▲주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대안 마련



구리시갈매신도시연합회가 태릉CC 개발에 따른 교통 문제 대응을 위한 주민 주도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구리시갈매신도시연합회 제공

▲국토교통부-경기도-구리시-서울시-LH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역 현안 공론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GTX-B 갈매역 정차 반영과 도로망·환승체계 개선, 대중교통 확충 방안 제안, 교통영향 분석, 주민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

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GTX-B 갈매역 정차 없는 태릉CC 개발 반대 ▲GTX-B 갈매역 정차의 광역교통대책 반영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마련 ▲개발 이익에 상응하는 교통 인프라 우선 확충 등을 촉구했다. 이화우 기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AI 윤리교육 협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초중고 생성형 AI 사용 윤리 표준화 및 미래 세대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사업' 운영과 관련, 서울교육대학교 신경윤리·가치·AI융합교육 연구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생성형 AI 사용 윤리 표준안 개발 ▲질문 중심 AI 윤리 리더 프로그램 기획 ▲현장 교사 연수 및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윤리 표준안을 함께 개발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보급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서울교육대학교 신경윤리·가치·AI융합교육 연구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제공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우 기자